



제조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강서구에 조성한 녹산산업단지 에 부산 기업들이 하나 둘 찾아 들고 있다. 제조업의 새로운 바람이 부는 이곳에 수위 조절 및 자동 제어용 밸브 전문 제조업체 인 (주)바렘도 자리하고 있다.

바렘이 자리하고 있는 녹산산업단지는 신호산업 단지, 과학산업단지, 장안산업단지 등 부산시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산업단지 중 하나로 부산 신항이 한창 건설 중인 부산 강서구에 위치 하고 있다. 제조 공장들이 들어선 만큼 다소 황량한 느낌이 드는 가운데, 넓은 단지에서 바렘을 찾기로 그리 어렵지 않았다.

“답장을 따라 노란 개나리가 핀 건물을 찾으시면 됩니다.”

약도 대신 받아든 말 한 마디는 거짓말처럼 딱 들어맞았다. 바렘의 사옥 주변으로는 산업단지 내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개나리가 줄을 지어 한 가득 피어 있었다.

“작년 말 공장 안팎의 생산현장 개선 사업에만 10억여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 제조업체, 그 중에서도 바렘처럼 밸브 제조업체는 갈끔하지 않다는 편견을 불식시켰고, 근무자들에게 보다 좋은 환경을 제공해 생산성이 높아지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바렘의 창업주이기도 한 조진식 대표이사는 잘 정리정돈된 현장도 자랑거리지만 바렘의 전면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며 말을 이었다.

모두가 원하는 바렘을 이루기 위해

바렘의 역사는 1981년 태광기계 설비공사(이하

태광)로부터 시작된다. 이후 태광은 성장을 거듭 하면서 태광기건과 태광정밀 그리고 태광인터네셔널 등 3개사로 모습을 갖추어 나간다. 그런 가운데 1급 건설업체와만 거래를 해도 빅칼 정도였고 입소문이 났던 태광기건, 기술력으로 소문이 났던 태광정밀 등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던 이들도 IMF를 맞으며 위기를 겪게 된다.

“실적도 좋았고 재무적으로도 탄탄했지만 IMF는 우리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작 남품을 해야 할 회사들이 줄줄이 없어지면서 태광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3개사를 합병하기로 하고, 1999년



기술이라는 씨앗을
소중히 심어가는 기업

(주)바렘

“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와도, 설사 공장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만의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

상호를 바렘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준비를 마치게 되었다. '바렘'은 당시 태광정밀에서 생산 하던 최고 히트상품인 밸브의 이름이었다. 화장실 수조에 물이 차오르면 수구를 막아주던 부표 달린 밸브인 '바렘'은 최고의 발명품이었던 탓에 주문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첫 마디가 "거기 바렘이죠?" 일 정도였다.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출발한 바렘이지만 창업 초기부터 결코 변하지 않은 한 가지는 바로 기술이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할 수 있다'는 짝막한 말 속에 숨어 있는 도전정신을 가슴에 품고 태광을 설립한 조진식 대표는 사실 엔지니어 출신이다. 수많은 제품들을 직접 만들고 시공한 풍부한 현장 경험 덕분에 누구보다도 기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술

'농부아사 침궐종자(農夫餓死 枕厥種子)'라는 말이 있다. 농사꾼은 굶어 죽어도 그 종자를 베고 잔다는 뜻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내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조진식 대표에게 기술은 바로 그런 것이다.

"기업 부설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제품 개발에 끊임없이 투자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

가 와도, 설사 공장 문을 닫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만의 기술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중요한 것이죠."

지난 30년간 조진식 대표는 영업팀을 두지 않았다. 바렘만이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다면 굳이 영업팀을 두지 않더라도 고객이 제품을 찾아 온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그런 식지 않은 열정으로 지금도 조진식 대표는 집무실보다는 기술연구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며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바렘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수위 조절 밸브나 자동 제어 밸브 분야에서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개발을 마무리하는 밸브 제어 장치인 '로보시스'는 업계 표준화를 이룰 대표 상품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중소기업청 기술혁신 사업의 연구과제로 개발을 시작한 로보시스(모델 RS-01)는 이미 조달청의 우수제품으로 지정되었고, 2009년 상반기 물 종합 기술연찬회에서 신기술 사례로 발표되기도 했다. 외국 기술이 대부분인 밸브 제조 분야에 국내 기술로 당당히 승부하는 바렘의 진정한 바람은 외국의 우수 업체들을 뛰어 넘는 세계적인 밸브 메이커가 되는 것이다. 담장을 따라 노랗게 피어난 개나리처럼 바렘의 희망도 환하게 피어나길 기대해 본다. ☺

